

# HEREN

트루 프리미엄 멤버십 매거진 HEREN IS LOVE

FEBRUARY 2015

MONT  
BLANC 

Meisterstück Heritage  
Perpetual Calendar  
and Hugh Jackman

Crafted for New Heights

나의 일상적인 HANBOK

호텔 총지배인 6인이 그리는 세계  
선율 위의 목자, 임헌정



*Meisterstück 90 Years Collection*



**DEN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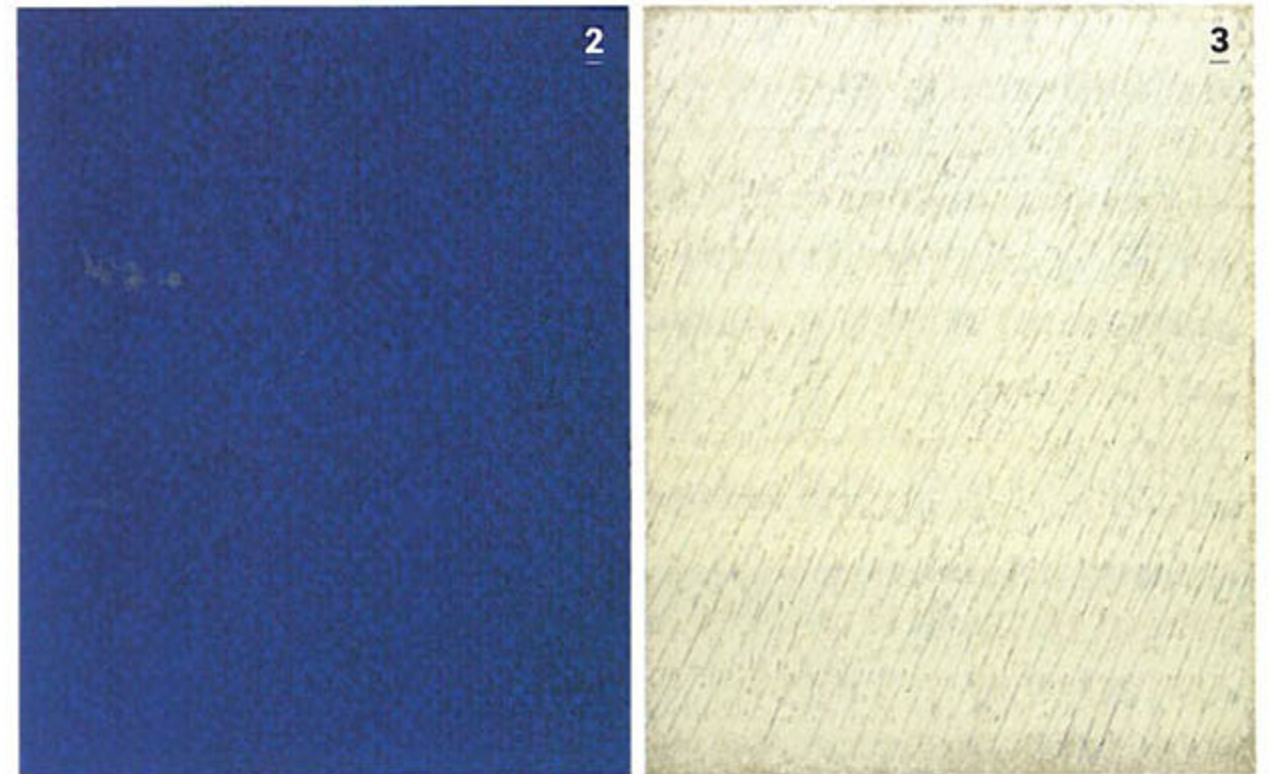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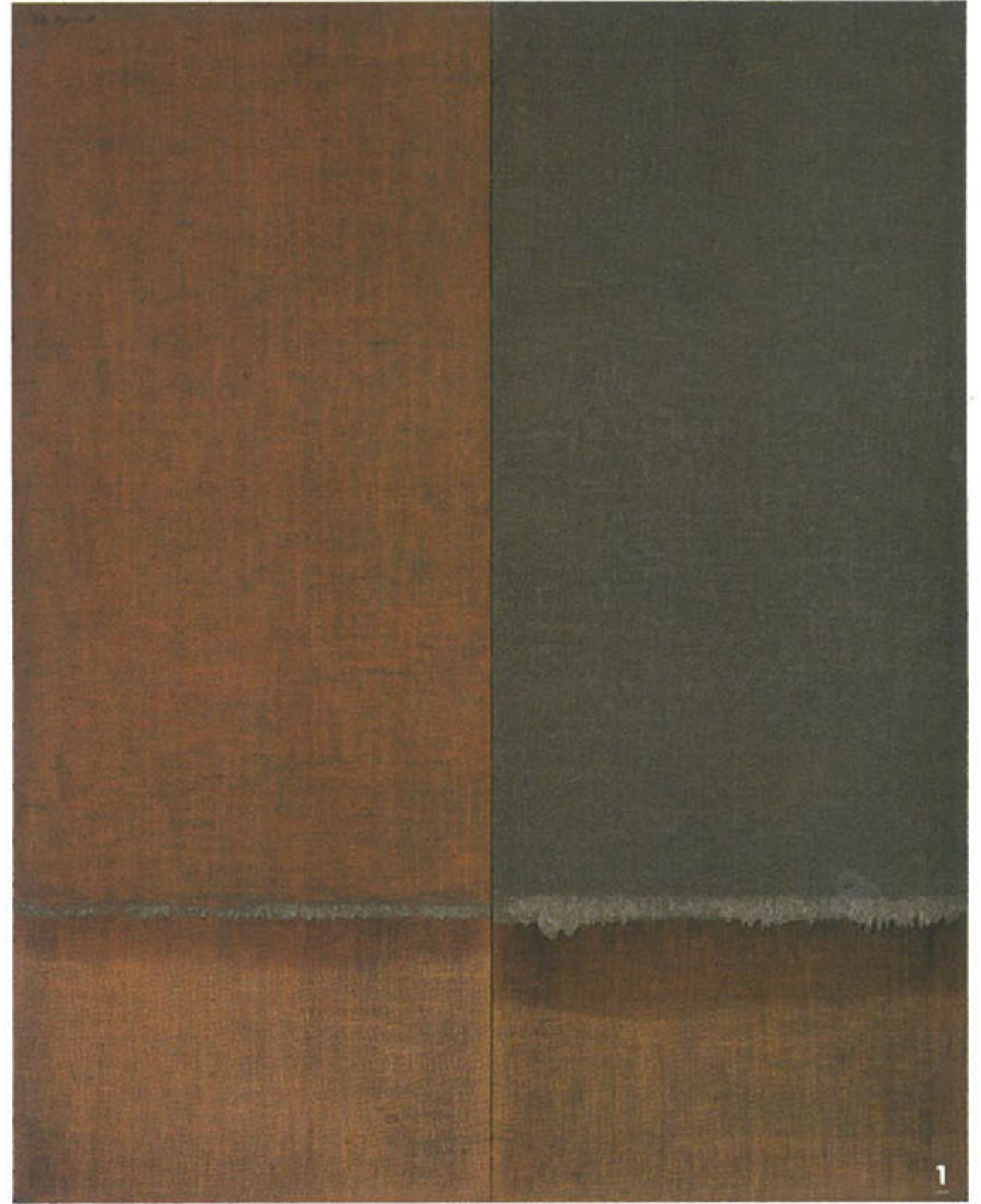
### 성북동 시대

빈티지 라인부터 모던한 디자인까지 다양한 가구를 국내에 소개하며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열풍의 선두주자로 북유럽 가구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소개해왔던 덴스크가 논현점 리뉴얼 오픈에 이어 지난 1월 16일, 성북동 33-478번지에 2호점을 열었다. 성북동 주택에 터를 잡은 2호점에서는 품격 있는 하이엔드 가구 위주의 덴스크 컬렉션, 그리고 김호진 대표의 특별한 컬렉션을 두루 감상할 수 있다. [web www.dansk.co.kr](http://www.dansk.co.kr)

**MOLTENI&C**

## SMART ELEGANCE

벽체형 가구는 막상 사용해보면 폭이 좁고 수납공간이 넉넉하지 못하거나 견고하지 않아 장식용으로 전락하기 일쑤다. '책상'이라는 지적인 공간을 누리는 즐거움도 찾기 쉽지 않다. 그러나 디자이너 론 길라드는 원목 소재와 섬세한 직선 라인으로 우아함을 지켜내면서 동시에 효과적인 수납 분배로 하이테크놀로지 시대에 걸맞은 벽체형 책상 'SEGRETO'를 선보였다. 종이 대신 노트북과 태블릿 PC, USB를 사용하는 흐름에 맞춘 수납 분할과 LED 라이트 기능이 돋보인다. [tel 02-443-5093](tel:02-443-5093)



1 하종현, 접합 78-7, 1978 2 정상화, 무제 07-02-05, 2007 3 박서보, 묘법 No.211-85, 1985

**ART ISSUE**

### 단색화의 정상 등극

단색화 열풍이 '옥션'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홍콩 크리스티에서는 '아시아 20세기&동시대 미술 경매'에 정상화와 윤형근의 작품이 최초로 출품돼 경합 끝에 판매됐고, 12월에 국내에서 열린 K 옥션의 겨울 경매에는 단색화 거장 4인-정상화, 하종현, 박서보, 윤형근-섹션에 22점의 작품이 출품돼 완판을 기록했다. 그중 정상화의 '무제 07-02-05'는 낙찰 수수료 포함 2억376만원에 판매되어 작가 작품 중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박서보의 '묘법 No.211-85'은 비교적 낮은 추정가를 네 배나 뛰어넘으며 2억8300만원에 판매됐다. 바로 다음 날 열린 서울옥션 경매에서도 단색화 작가들의 작품 12점이 모두 완판됐다. 솔깃한 소식이 있다면, 2015년 4월을 목표로 세계 최고의 경매회사인 소더비와 크리스티가 '단색화 특별전'을 기획하고 있다는 것. 특히 최근 단색화에 대한 중국 컬렉터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홍콩 전시에 수많은 중국 컬렉터들이 몰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학교재 상하이에서 2월 8일까지 진행되는 중국 최초의 단색화전 <생성의 자유> 역시 바로 이런 관심의 방증! 국내를 넘어 세계 미술계에서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매김한 단색화. 오랫동안 저평가되어왔던 우리의 단색화가 올해 다시 한번 새로운 승전보를 들려주길 기대한다. **writing** 박지혜